

古時調集에 나타난 表記 樣相 研究

임 종 찬*

차 례

I. 서 론	4. 六切式 表記
II. 古時調集에 나타난 表記 樣相	5. 七切式 表記
1. 줄글내리박이식 表記	6. 九切式 表記
2. 三章式 表記	7. 12切式 表記
3. 五章式 表記	III. 결 론

I. 서 론

첫째, 고시조는 唱을 위한 唱詞로서 고시조집에 수록되어 전해오는 시가다. 그렇기 때문에 고시조 작품 안에는 唱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方便이 내재해 있다.

둘째, 고시조는 律讀을 통한 구비전승의 시가이기도 하였다. 여기서 율독이라 함은 正형시를 正형시답게 느끼도록 正형율을 살려 읽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시조에는 율독의 편의, 구비전승의 편의를 위한 方便이 내재해 있다.

이렇게 두고 볼 때, 고시조집에 기사된 표기들을 살펴보면, 첫째와 둘째 경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우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唱者 또는 律讀者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나타나리라 본다.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고시조 작가 또는 애호가들의 시조 표기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Ⅱ. 古時調集에 나타난 表記 樣相

여기서 말하는 고시조집은 唱을 전제로 하거나 율독을 고려해서 만든, 18세기에서 20세기초까지의 필사본 또는 인쇄본으로 간행된 시조집을 말한다. 성격이 이렇다보니 시조집 편찬자는 唱과 연관된 자이며 그 활용 또한 唱者의 편의를 위해 곡조대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간혹 唱을 전수하기 위한 편의까지가 도모된 책자들이다.

그런데 고시조집의 표기 방식은 唱의 방식에 따라 表記를 달리하였는가 하면, 창과는 무관하게 表記한 경우, 창외 대본뿐 아니라 律讀上의 편의를 도모한 表記가 보이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줄글내리박이식 表記

- 1) 靑草우거진골에자는다누엇는다紅顔을어디두고白骨만무엇논이
 藎자바勸호리업스니그를슬허하노라.

林憺(靑珍 107)

- 2) 줄여죽으려호고首陽山들러건이헛마고살이를먹으려쿠야
 실야物性이굽은줄에풀아퍼본여고립이라

(周氏本 海東歌謠 274)

1)과 2)는 章과 句의 구분이 없고 세로쓰기 형태로 되어 있고, 앞작품과 뒷작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작품의 시작은 줄의 첫머리에서부터 記寫하고 있다.

1), 2)는 18세기에 편찬한 가집이며 편찬자는 唱의 名人으로 활약했던 사람 들인데, 여기서 句나 章의 구별이 없다는 것은 이같은 구별 없이도 句와 章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이를 위한 表記, 즉 시조창 또는 가곡창 그 어느 것

이나 창할 능력이 결여된 唱者를 위한 表記라고 보여진다.

2. 三章式 表記

3) 간밤에 부든바람만 정도화되지저다. 아희는 뷁를 돌고 소로라향
는고야. 낙화들고 지아니라 스러무숨
(南薰太平歌)

4) 노세절머노세늘거지면 못노느니 △花無十日紅이요 달도 차면귀
우느니 △人生이一場春夢이라 아니늘가
(調 및 詞 10)

5) 청석령지나거다 초하구어되메노. 삭풍도 참도찰사구준비는무
삼일고 아모나니 형식그러다가 님계신더드러라
孝宗(無雙新舊雜歌 p.97)

3)은 시조창을 겨냥해서 3장 구분과 종장 끝음보 ‘호리오’를 생략한 채 기사되어 있다. 4)는 창과 창 사이에 △표를 붙여 장 구분을 하고 있는데 3)보다 더 적극적으로 장 구분을 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3)은 19세기 후반, 4)는 19세기 전반에 편찬된 가집이므로, 문장부호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지 않았던 시기이기에 章의 구분을 위해 문장부호와 다르게 △표를 붙인 것은 아닌가 한다. 5)는 20세기 초엽에 간행된 활자본이다. 장의 구분을 위해 상당한 간격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5)는 작품 첫머리에 ‘계면초수대엽’이란 가곡창의 곡명이 보이는데, 이렇다고 한다면 가곡창식의 5장식 표기를 하지 않고 시조창식의 3장식 표기를 하였을까.

無雙新舊雜歌의 본문 첫장에 ‘광무더소리’라는 기록과 함께 본문중에 ‘박춘지소리’, ‘리형순이소리’ 등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광무대에서 공연된 작품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가집¹⁾으로 보인다.

박춘지와 리형순은 당대 유명한 唱人으로 짐작되는데 이들 수준이라면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가곡창과 시조창이 자유로웠을 것으로 보인다.

1) 愼慶淑, 19세기 歌集의 展開(계명문화사 1994), p.114

9), 10), 11)도 역시 가곡창을 겨냥한 五章式 표기로써 장구분을 하고 있음을 알겠다. 그런데 장이 끝나는 자리에는 마침표를 부가하고 또 간격을 확실히 유지하였는데, 章 안에 쉼표를 부가한 것이 이색적이다. 이 쉼표는 무슨 기능을 하는 것일까. 이것은 음악상의 휴지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고 아무래도 암송을 위한 편의, 또는 가창 지도상의 편의를 위한 표시로밖에 볼 수 없겠다. 이런 식의 율독이 정형율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율독과 무관한 표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4. 六切式 表記

12) 신벽서리지신달에 외기리기우러인다 반가운님
의소식 형여온가발앗쳐니 다만지 창망한구름박게부인소식뿐이
로다
(가곡보감 p.6)

13) 창오삼경세우시의 양인심사양인지라 심정이미흠한다
날이장차발가온다 다시금 나삼을부여잡고후씨악을뒀더라
(가곡보감 p.6)

14) 휴강의밤이드니 물결이자녀미라 낙시울드리오니 고기
아니무녀미라 무심한달빛만있고 빈비져어오드라
(가곡보감 p.7)

15) 한손에막더를들고,또한손에가식롤쥐여,늙는길가식으로막고,
오논빅발을미로티렸더니,빅발이제문져알고,즈렘길로오도다
(女唱歌要錄 135)

歌曲寶鑑은 1928년 平壤箕城卷番發行의 활자본 가집인데, 편집 겸 발행자는 金龜禧이다. 가곡보감은 책명이 그러하듯이 歌曲을 唱하기 위해 만들어진 歌集이다. 그런데 五章式 表記를 하지 않고 6切로 표기되어 있고 그 表記도 12), 13)은 같지만 14)는 다르다.

女唱歌要錄은 歌曲源流系 各本에 本文附錄으로 女唱이 畵卷되어 있는데, 이것을 분리한 책이며 19세기 후반에 편찬된 책이다.³⁾ 그렇다면 이것 역시

3) 沈載完 : 時調의 文獻的 研究(世宗文化社 1972), pp.61~62.

가곡을 위한 歌集인데도 15)는 가곡상의 표기를 하지 않고 6切로 나누고 있다. 뒤에 다시 거론되겠지만 19세기 후반에 들면서 唱도 하려니와 律讀을 위한 시도로 또는 시조를 암송하기 위한 적당한 의미 단락에서 또는 호흡 조절상의 위치에서 끊어 읽도록 시조 작품을 여러 형태로 表記하고 있다.

14), 15)는 현대시조시인들간에 흔하게 나타나는 소위 6句式 表記 형태인데, 당시의 시조관심자들이 시조가 3장 6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한다.

5. 七切式 表記

16) ㅁ음아너논어니, ㅁ양에결머는다 내늘글제면, ㅁ들아니후
글소나 아마도 너초쳐든니다가, ㅁ우일가호노라
(大東風雅 32)

17) 공령이그무엇고, 부귀도불관하다 단갈초식이, 나의분에족
호거니 아마도 성세일민은, 나뿐인가호노라
(大東風雅 33)

18) 사람이죽어지면 어디메로보너고 저심도이싱곳
치 님호테로보너가 진실노 그러홀씩시면 이
제죽어가리라
(大東風雅 138)

19) 십년을경영호야 초려호간지어너니 반간은청풍
이요 반간은명월이라 강산은 드릴터업스
니 돌려두고보리라
(大東風雅 144)

20) 금노에향진호고 누성이잔하도록 어더가잇서 뒤사랑고
이다가 월명이 상난간호여 ㅁ바드러왔노니
(가곡보감 p.2)

大東風雅는 1908년 金喬軒이 편집한 활자본이며 시조가 끝난 다음에 歌辭 5編이 붙어 있고, 本文에는 曲調에 대한 분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역시 창 의 교본으로 활용되었던 듯하다.

같은 책이지만 16), 17)에서는 적당한 위치에 쉼표가 찍혀 있고, 18), 19)에

서는 16), 17)에 해당하는 위치에 쉼표를 부가하지 않았다. 20)은 大東風雅보다 조금 뒤에 간행되었는데 大東風雅식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쉼표를 부가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표기들은 입을 전제로 하지 않은 표기들인데, 六切式 表記에서 종장 쉼음보를 떼어 낸 형태이다. 이것들 역시 율독과 유관한 표기가 아닌가 한다.

6. 九切式 表記

21) 청도야 오도고야 반갑다 님에소식 약수삼철니를
네어이전너완노 우리님 만단정회를 네알니라

(歌曲寶鑑 p.2)

가곡보감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표기 양식이 등장하고 있는데 21)에서 보듯이 九切式 表記도 보이고 있다. 종장 끝음보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표기도 창과는 무관한 표기이고 시조의 律讀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7. 12切式 表記

22) 기력이,산이르잖아,경드리고,길드러셔,님의집,가는길을,
덕너히,가룻쳐두고,밤중만,님싱각날제년,소식전케,하리라

(女唱歌要錄 58)

23) 요지에,봄이드니,벽도화 | ,다뛰거다,습천년,미천열미,옥반에,
담아시니,진실로,이반곳바드시면,만수무강,하오리라

(女唱歌要錄 70)

女唱歌要錄이 歌曲源流系 各本の 附錄에 女唱이 畧卷된 것을 따로 떼어 分冊된 것이라면 歌曲唱式의 五章 表記가 마땅한 것인데도 이것과는 상당히 다른 12切 表記를 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表記는 現代時調詩人들 간에 흔히 보이는 1장 4음보의 총 12음보를 음보별로 표기하고 있는 형태와 유사하다.

22), 23)은 오늘날 소위 踏步란 말이 쓰이기 전에 踏步에 대한 개념이 이미

존재해 있었음을 증명한다고 보여진다. 다시 말해 시조는 정격의 시로 보아 1장 4음보 도합 12음보로 이룩된 시가이면서 이것을 12음보로 율독하기를 강요하는 표기라 할 수 있다.

Ⅲ. 결 론

이상 고시조집에 표기된 여러 형태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창이나 律讀을 위한 表記가 아닌, 단순히 시조 작품의 전달만을 목적으로 하는 표기가 있었다. 이것은 창이나 律讀의 종류에 따라 창자가 시조를 임의대로 창할 수 있도록 하고, 창이 아닌 律讀을 할 경우라 해도 율독자의 재량에 맡겨 놓은 표기라 하겠다.

둘째, 시조창 또는 가곡창을 겨냥한 표기 형태가 있었고, 그 중에는 창을 겨냥한 표기 안에 律讀할 경우를 생각하여 부호를 삽입한 경우가 있었다.

셋째, 창과는 상관되지 않는 여러 형태의 표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律讀上의 편의를 도모한 것인지 아니면 교본으로서 창을 지도할 적에 지도상의 편의를 위한 표기인지 또는 이 두 경우 모두를 포함하기 위한 표기인지는 알 수 없으나, 끊어놓은 자리는 소위 句의 자리이거나 또는 음보의 자리에 해당하여 의미상 분별되는 자리임을 나타내고 있다.

넷째, 소위 시조를 3장 6구 12음보라 할 때, 구의 기능을 살려 6切, 또 음보의 기능을 살려 12切로 된 表記가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표기는 시조 작품의 구조상의 이치를 따라 律讀하기를 강요하는 表記라고 보여진다.

이와 같이 볼 때, 고시조집을 편찬한 이들은 창과 시조와의 유기적 관계를 깊이 인식하고, 이것을 표기화하려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Abstract

A Study on the Writing System of the Collection of Old Sijo Poems

Im Jong-Chan

After examining the various types of writing of the collection of old sijo poems, the conclusions to be drawn are as follows:

First, one type of writing is just for preserving sijo poems themselves in written forms, not aiming at helping readers sing or scan them. This type sometimes allows them to choose either to sing or to scan each work depending on what kind it is.

Second, another type is for helping readers sing sijo works either in a Sijo-chang or Kagok-chang form, where there were sometimes added signs for scanning them, if necessary.

Third, there were various other types of writing in the collection of old sijo poems which appear to be irrelevant with helping readers sing or scan them easier.

Whether they were devised for helping readers scan them or making the job of teaching how to sing them easier is not known yet. But each pause shows a meaningful phrase or foot unit.

Fourth, every sijo poem is consisted of 3 chapters, 6 phrases, and 12 feet. Therefore there were the 6-pause type divided by phrase and the 12-pause type by foot, all aiming at helping readers scan in accordance with structural feature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ose who compiled the collection of old sijo poems deeply appreciated the correlative relationship between sijo

10 한국문학논총 제 25집

poems and expressing them in song forms and tried to devise writing systems that function to help readers sing or scan sijo works.